

전일동향

전일 대비 10.70원 하락한 1,532.00원에 마감

26일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4.60원 상승한 1,547.30원에 개장했다. 서울장 마감을 앞두고 투하된 대규모 미세조정 추정 물량이 환율에 하방압력을 가하며, 전일 대비 10.70원 하락한 1,532.00원에 마감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23.8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47.00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06:0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547.30	1549.80	1526.00	1532.00	1544.20
엔화	953.40	958.44	945.55	947.00	-	
유로화	1753.83	1761.29	1738.29	1744.02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03	-2.26	-6.46
결제환율(수입)	0	-1.06	-4.33	-11.79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중동발 불확실성 재부상에...1,53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5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532.00) 대비 4.45원 상승한 1,535.90원 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중동발 불확실성 재부상과 오픈시 상장 지연이 촉발한 시릴리 위축으로 상승 전망한다.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을 기점으로 미국과 이란이 주말 내내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면 부상했으나, 차기 회담 전까지 공습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일부 완화되고 국제유가가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오픈시 상장 지연 가능성이 국내 증시 내 외국인 매도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금일 환율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출업체 반기말 네고물량의 출회는 환율 상단을 지지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531.00 ~ 1542.33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42905.84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4.45원 ↑
	■ 美 다우지수 : 51876.11, -44.51p(-0.09%)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59.62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203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